

사순 제 5주일

기도서	272면 (C해)
제1독서: 이 사	43, 16-21
제2독서: 필립	3, 8-14
복음: 요한	8, 1-11

#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요한 8,11)

□ 강론



##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김기곤 신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다(창세 1, 26이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닮게 창조된 존재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간 그 자체가 무시되거나 단죄되어 버릴 수는 없다. 비록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그 죄가 그 인간 자체를 영원히 말살시킬 근본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그래서 인간 그 자체를 파괴해 버릴 때가 많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 그 자체보다 다른 어떤 것(돈, 명예, 권력, 지식, 관례, 법 등등)을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들 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사람 위에 있게 됨으로써 인간 그 자체가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거나 한다.

이런 경향은 과학이 발달되고 인구가 급증되는 오늘날에, 또한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더해가는 현대에 와서 더욱 짙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 그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그 자체보다 율법준수를 고수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사도와 사람들이 어느날 갑툭튀하다 현장에 서 목격된 한 여인을 그리스도께 데려왔다. 그들은 평소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불쌍한 사람들을 온정으로써 보살피 주심을 몹시 못마땅해 왔던 자들이다(마르 3, 1; 루카 15, 1이하).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매개로 그리스도께 도전해온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불쌍한 사람들을 온정으로 대해주었을지라도 율법에 명시된 간음죄(배우 20, 10; 신명 22, 22)만큼은 용납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간음죄에 대한 율법을 직접 긍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신 그리스도는 심판의 공포와 수치스러움의 상황에 갇힌 한 여인을 극한상황으로부터 통쾌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간음한 여인을 해방시킨 열쇠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근간이었던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지극히 '인간다운 온정' 바로 그것이었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신의 가장스런 죄로 몸들바를 모를 여인에게 쏟아진 그리스도의 자애와 온정의 말씀이다. 인간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율법과 삶의 체념으로 몸을 떠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이끌 복음적 힘이었다.

사순절이 무르익는 이 시기에,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할 수는 그리스도의 온정을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동시에 우리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힘을 입어 우리도 부단히 그분을 향해 달릴 길을 달려가도록 힘써 노력하자(필립 3, 14).

(노송 보좌신부)



## 민주화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

서울 대교구는 지난 3월 1일부터 9일까지 「정의(正義)와 평화(平和)를 간구하는 9일기도」를 바쳤다, 아흐레를, 신뢰 회복을 위한/참 권위의 회복을 위한/참다운 말씀의 회복을 위한/감옥에 갇힌 이들을 향한/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한/가난한 이들을 위한/회개를 위한/용서를 향한/보속을 위한 순례의 날로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바쳤다.

김수환 추기경은 9일기도를 마치며 「민주화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 시대를 「대립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화해」라고 처방했다. 김추기경은 불의를 저지른 이들, 고문과 폭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 이상에 불타는 학생과 청년들을 무자비하게 민족의 적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들에게 하느님께로의 회심을 일깨웠다. 현정부에게는 시대의 요청(현대세계의 흐름·백성의 소리·하늘의 뜻)인 민주화의 추진을 촉구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의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원한, 편견과 저주를 풀도록 당부했다.

또한 불의를 보고 그것이 불의인줄 알면서도 힘과 용기의 부족으로 아무런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생각과 말로만 불만을 표시해온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촉구했다. 즉 이 세상이 여러가지 불의로 얼룩져 가도록 방관하고 간접적으로 묵인해 온 자신의 책임을 하느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하라고.

나는 누구인가? 불의한 자인가, 정의의 편에 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우는 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그리고 하느님께는 무엇을 기도하는 자인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인가! 세상 구원을 위해 수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며 살자.

## 숲정이 산책



빨리할수록 좋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회장:이돈명, 담당:윤공희 대주교)는 지난 3월 31일자로 「민주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란 제하의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주어 진 최종적인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길은 정치공동체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제정권과 개정권, 투표권을 통한 참정권의 행사」라고 전제, 「최근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당국의 법적 및 물리적 제재조치는 국민에게 더 이상 자신이 주권자임과 민주사회의 자유민임을 포기케 하는 반민주적인 폭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인 개헌서명운동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리」라고 천명했다.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명동 사도회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현시국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힌 정평위는 「정의를 위한 행동과 사회개혁에의 참여는 복음선포의 구성요소이며 인간을 구원하고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할 교회사명의 일부」임을 상기시켰다.

정평위는 「오늘날 국민의 개헌요구는 단순히 대통령 선출방식이나 통치구조에 대한 이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독재적 유신체제의 연장이라는 성격과 함께 제정절차의 반민주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헌정권이 늦게나마 현행 헌법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그 내용과 제정절차에 있어서 반민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지만」 그러나 「89년 개헌론은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저의와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다같이 민주적인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 시점 한국에서의 민주화의 시발이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개헌논의의 진정한 의미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는 한 사람이 임기를 다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경쟁과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 선택권 행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정권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정권담당자만의 교체는 비록 평화적이라 할지라도 정권의 승계를 통한 일당독재일 뿐인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먼저 민주적 경쟁이 가능한 제도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평위는 「지난해 2·12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民意)는 1년이 지나도록 거부되고 있으며, 민주화는 이른바 「큰 정치론」에 밀려나 가치의 축소를 당하고 있다」면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거부, 유보하는 것이 「큰 정치」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심대한 심리적 및 생활상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제도적인 폭력, 억압하는 폭력 그 자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경찰력을 동원, 개인의 주거를 포위하고 통신수단을 차단하며 정당이나 단체의

전국 정평위 「민주화 위한 시대적 소명」 성명 발표

# 改憲署名은 國民의 基本權

사무소를 봉쇄하는 것 등은 바로 공권력에 의한 엄청난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본성과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최근 수배중인 학생을 숨겨준 교사와 동료가 구속되거나 보복당하며 교장이 직위해제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인가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의와 양심과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고갈이 권장되는 사회는 분명 배울 여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법보다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존중되고 정당하게 평가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또 「이제까지의 불균형 성장정책은 인구의 1/4이 살고있는 생명산업의 현장인 농촌사회를 파탄시켰고 1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조건을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몰아 넣었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냐는 도덕적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평위는 「이들의 절규와 항의를 오직 치안차원에서만 다루고 처벌한다면 그들의 한계상황에서 나오는 절망감과 분노가 보다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케 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간이 보다 완전히,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의 생활조건을 총체적으로 공동선이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보호되는 곳에서만 신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덧붙여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단편적인 논의가 용공파경의 징표로 제시되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고뇌의 결정이 용공파경으로 매도되는 것을 안타까와 한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극도로 자제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면서 더불어 학생들에게 자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 제 일 안 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여러분께  
염가봉사

전주 전통성당 사거리  
(신호등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아나

웨딩드레스·약혼복 드레스 대여

### 금수 웨딩드레스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 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변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 영 숙(주리아)

###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 교 구 소 식

1. 4지구 교리교사 모임 : 16일 오후 2시30분, 연지동성당
  2. 중·고등학생연합회 임시총회 : 1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 본당 학생회입원 및 입후보자
  3. 사제어머니 모임 : 20일 오후 2시, 장소-신수당(강덕행 신부 모친배)
  4. 신학생·성소자 부모님 피정 : 22일 오후 4시~23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6천원(부부는 1만원), 준비물-미사도구·세면도구
  5. 3월중 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 22일 저녁 10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6. 브레시디움 단장교육 :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4시, 장소-광주 명상의집  
참석대상-브레시디움 단장(선착순 90명), 참가비-18,000원(교통비 4천원 포함됨)  
감사 및 주관-한국 세나투스, 교통안내-22일 오후 2시 진동성당에서 출발
  7. M·E 사무국 개설로 사무실 주재근무 알림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6시까지
- ※ **축 ! 명영 : 성요셉(19일)** 김종택, 안복진, 배영근, 유장훈, 정승현, 나궁열, 김순배, 조정오, 강덕행, 서광석, 최상범 신부님 축하합니다
- ✦ **조의 :** 지난 8일 배영근 신부님 형님(알로이시오)께서 벨지움 자택에서 선종하셨습니다. 당자를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웨플라레 여자 전체 전대회 : 22일 오후 5시~23일 오후 5시 (1박2일)  
가톨릭센터 교육관, 회비-2천원

※ 가정기도 시편 51:10~19 독서 : I 고린 1:21~24 복음 : 마르코 13:28~31

## ❁ 잠깐!

우리는……?

멀리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귀한 성금을 보내왔다. 리비아 주재 한인교회 신자들이 순창본당 어려운 살림에 보태 써달라고 200불을 보내온 것.

크든 작든, 형제애에 대한 가슴 뿌듯한 느낌과 함께, 그토록 먼 곳에서까지 서로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문해 본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알팍한 부끄러움에 마음을 아프게 한다.

누가 내 이웃이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새롭게 물어진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감사드리면서…….

### 서광석 신부님, 철학박사 학위 취득

82년도에 유학길을 떠나 그동안 로마에서 공부하시던 서광석신부님께서 지난 2월17일자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반가운 소식.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귀국하시는 날까지도 끝까지 건강하시길 빌어드리자.

###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전교구 성모병원에서는 대전교구 신자들에 대한 의료비 할인제도 혜택을 본 교구 신자들에게도 적용, 본당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의료비를 할인받게 됐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

3개월 수료 자격증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  
으신분 상담 환영

##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아백화점 앞  
김 금 순(테레사)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로 서원 옆  
☎ 72-5770

김 흥 균(베드로)

## 꾸르실료 소식

1. 꾸르실리스트 현황파악 중...본당 사무실에 가시어 협조하십시오
2. 본당 올드레야 임원연수회...4월 13일(일), 2명씩 참가
3. '86 꾸르실료 동창회(남성 23·24차, 여성 20·21차)...4월 20일
4. 교구 올드레야 : 6월 6일
5. 지도자학교 개설...봉사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십시오

## 요십이 (658) 김병오



## 신앙대학 제 2기 학생모집

1. 수료기간 : 1년 2학기  
1학기 - 4~6월, 2학기 - 9~11월
2. 수업일시 : 매주 화·수  
6시30분~9시30분
3. 과목 : 성서입문, 교리해설, 기초신학, 윤리신학, 교리교수법, 그리스도론, 교회사론, 성사총론, 영성신학
4. 접수및문의 : 3월 26일까지 교육국(☎0041)
5. 정월 : 80명
6. 수강료 : 월15,000원 (학기당 45,000원)
7. 개강 : 4월 1일(화) 오후 6시30분
8. 입학식 : 3월31일(월)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올 태  
수.파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 다음주는 가정주간입니다(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축복받으세요)

1. 본당 판공일정: 16일 오후 2시-초등부 어린이(본당 아파트), 18일 오후 2시-우아아파트, 19일 오전 9시-인후아파트, 20일 오전 9시-인후동, 21일 오전 9시-중노2가동, 22일 오후 2시-직장인들, 23일 오후 2시-중고학생들, 24일 오전 9시-남노송동, 24일 오후 2시-우아동, 25일 오전 9시-중노1가동, 26일 오전 9시-기타지역 ※성사주는 시각은 매일 오전 9시~12시까지, 오후 2시~5시까지입니다. 일정과 시간을 엄수하여 성사를 받습니다
2. 협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저녁미사 시간변경: 본당의 모든 저녁미사를 저녁 7시30분으로 변경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화요교리반: 저녁 8시에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4. 아버지들의 미사: 20일 저녁 8시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 교무금 수입을 못하신 분들은 속히 수입하십시오
  6. 금주의 전례담당: (제4주) 해설-임영빈 독서-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이창환 부부, 촛불봉헌-최영복·김영례 자매님
  7. 교직자 모임: 공식미사 후
  8. 성심회: 1일피정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38,280원 교무금: 290,000원 신축헌금: 133,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복자부녀회 피정: 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준비물-성경·미사준비·도시락
3. 부활성가연습: 18일~25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성가대원 전원 참석 바람
4. 부활전 성당청소: 22일 오전 10시-황금궁전pr, 이 땅의 빛pr, 치명자의 모후pr, 셋백pr 단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별헌금: 다음주일, 단식권고일-21일
6. 감사: 가정방문에 수고하신 분들께
7. 교무금(주남) 미수되신분: 부활주일까지 완납하세요
8. 대학생모임: 다음주일(23일) 오후 4시 빠짐없이 참석
9. 부활 판공성사일정: 21일-진북1~5반·화산1~2반, 22일-중고생·직장인·기타, 25일-태평1~8반·완산동, 26일-다가4가1~3반·다가3가반·교사1~3반 성사시간-오전 10~12시, 오후 3~6시, 저녁미사후 ※날자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비자 집중교리: 18일·19일 저녁 7시30분-신부님
11. 부활제대꽃 봉헌하실 분: 수녀님께 접수해 주세요
12. 유아세례: 신청을 사무실에 23일까지 해주세요
13.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진 ②장기연
14.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장만준 ②강준희 봉헌-이남덕 부부

수난복을 수신부님 ①김성원 ②최윤석  
□ 지난주 봉헌금: 240,475원 교무금: 535,510원

(삼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1. 전신자 1일피정: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 ② 판공성사: 피정후 오후 5시~오후 6시30분 ※ 피정에 참가하셔야 참가가 면제됩니다
2. 별자판공: 20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오늘 미리 신청해 주세요

3. 순정이 은인: 이옥동형제가 2주년 봉헌해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봉헌하실분 미리 접수해 주세요
4. 금주전례: 해설-김은수, 독서-①김영신 ②이승복 봉헌-안정만회장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우동, 독서-①황태봉 ②김봉룡 봉헌-김중석회장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0,650원 교무금: 57,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제2성당 주일미사: 오전 9시30분, 오후 2시
2.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20일 오후 2시
4. 꾸리아 모임: 23일 오후 2시
5. 마치에스행사: 21일 오후 2시
6. 중·고생 성지순례: 천호~여산본당(16일 오전 10시 성당으로 집합)
7. 예비자교리: 교우분들께서 많은 인도 바랍니다 중·고생교리-토요일 오후 6시, 일반-공식미사후
8. 오늘봉헌: 조정웅 부부 차주: 신영창 부부
9. 춘계 판공성사: 15~26일까지(19~21일 손님신부님들께서 성사주)
10. 평화동 제2성당에 대형성모상 기증 익명, 14처 기증-익명
11. 사무장 채용: 강정희, 관리자 채용: 김정훈
12.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최창필, 독서-①함문권 ②차상열  
공식미사: 해설-김배근·김은경  
독서-①이정민 ②장기호  
저녁미사: 해설-진경선, 독서-①유명환 ②강경화

□ 지난주 봉헌금: 384,980원 교무금: 138,000원 미수금: 222,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 축! 영명: 최상범(요셉) 신부님-공식미사 후 축하곡, 축하연회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섬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4.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사순절 9일기구: 17일~26일(주일은 제외) 장소-치명자산, 오전 5시30분
  6. 판공일정: 17일~22일(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17일-전동, 18일-동교동·서교동, 19일-동원산동·서원산동, 20일-풍남동·남노송동, 21일-중양동·경원동·다가동, 22일-학생·직장인·기타
  7. 성주간 일정: 27일(성목요일)-오후 8시 28일(성금요일)-오후 8시 29일(성토요일)-영세식(오후 7시), 오후 12시-전야미사
  8. 전신자 1일피정: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9. 다음주 봉헌담당: 최중만 부부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최중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배한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이경희, 독서-①김준수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917,070원 교무금: 630,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부활판공성사: 22일~26일, 저녁 7시30분~10시 ※ 초청 고해신부: 22일·25일-저녁 7시30분
2. 꾸리아 임원개편: 단장-유명환, 부단장-양광식, 서기-박장래, 회계-이영준
3. 본당신부 사목방문: 18일-거성아파트, 20일-태하·무강·한성아파트
4. 모임: 성모회-공식미사 후, 울뜨레아-저녁미사 후
5. 주부 성서대학: 19일 오전 10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6. 유치원 교육자료 기증: 금마성당 유치원에
7. 은혜의밤(철야기도회): 22일 밤10시

□ 지난주 봉헌금: 523,840원 교무금: 428,000원